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1, pp.213-221, January 31, 2023.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23.9.1.213

JCCT 2023-1-28

COVID-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불안 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Image of Nurses,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Anxiety among Nursing students in University who experienced Covid-19

소정현*, 김민호**, 홍소연**, 황재윤**, 윤현경***

Jeong Hyeon So*, Min Ho Kim, So Yeon Hong**, Jae Yoon Hwang**, Hyeon Gyeong Yoon*****

요 약 본 연구는 COVID-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와 간호전문직관, 불안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22년 5월~7월까지 경기도 S시 간호대학생 2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전문직관(r=.635, p<.001) 및 전공만족도(r=.581 p<.001)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났고 간호전문직관은 전공만족도(r=.504, p<.001)는 양의 상관관계를 불안(r=-.143, p=.030)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COVID-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은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고 불안을 낮추기 위해 위한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이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 불안, COVID-19, 간호사 이미지, 간호대학생,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 image,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anxiety of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COVID-19. Data was collected from May to July 2022. The participants were 230 nursing students in S-city, Gyeonggi-do.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articipantt's nurse imag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nursing professionalism (r=.635, p<.001) and major satisfaction (r=.581 p<.001),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nd major satisfaction (r=.504, p<.001) was found to be positively correlated.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anxiety (r=-.143, p=.030). As a result of this study,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COVID-19 should seek various intervention programs to increase nurse image,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nd lower anxiety.

Key words : Anxiety, COVID-19, Image of Nurses, Nursing College Student, Nursing Professionalism, Major Satisfaction

*준회원,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제1저자)
**준회원,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참여저자)
***정회원,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11월 30일, 수정완료일: 2023년 1월 4일
게재확정일: 2023년 1월 9일

Received: November 30, 2022 / Revised: January 4, 2023
Accepted: January 9, 2023
***Corresponding Author: hkyoon@eulji.ac.kr
Dept. of Nursing, Eulji Univ, Korea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20년 3월 COVID-19(corona virus disease 19) 상황을 두고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등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다[1]. COVID-19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급격히 변화되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확대되고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2].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간호정책결정,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간호서비스 인식, 간호사의 자아이미지, 직무만족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3]. COVID-19 발생 이전, 일반 대중들에게 비추어지는 간호사의 이미지는 '희생과 봉사', '백의의 천사'와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의사의 보조자, 또는 의사에게 종속되어있는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이미지로 인식되어 있었다[4,5]. 그러나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인의 봉사정신과 헌신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중 환자의 회복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에 호의적인 모습이 대중매체의 많이 노출되고있다[6,7]. 선행연구에 따르면 COVID-19 팬데믹 시대에 간호사 관련 보도자료가 증가하였고 보도 내용 또한 간호사의 전문성, 소명 의식 등 긍정적인 이미지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 간호사의 언론노출이 커졌다[6].

전공만족도는 본인이 계획한 직업과 진로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뜻한다[8]. 높은 수준의 전공만족도를 보이는 간호대학생은 진로에 대한 기대와 가치관이 확고하며, 간호사로서의 자질 향상과 의료인으로서 임무를 다하는 지식함양과 인격을 갖추게 된다[9]. 간호대학생 중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태도는 학업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대학생활을 이끌고, 전공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바른 직업관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9,10]. 반면, 대학생 때 전공에 불만족 한 간호대학생은 임상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을 때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11]. 간호전문직관은 직업으로서의 간호와 전문직업인으로서 간호사의 활동 및 직무에 대한 견해를 총괄하는 신념으로[2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를 잘 이행하며[9, 13],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예비간호사로서의 자기 모습과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또한, 간호 직무 수행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쳐, 임상간호사가 되었을 때 업무 수행능력, 간호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15].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제대로 형성하는 것은 COVID-19 상황에서 증가한 간호 요구와 기대에 대응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며[16], 간호사가 긍정적이고 확고한 간호전문직관을 가질 때 의료현장에서 조직의 몰입을 높여 양질의 간호제공과 효율적인 간호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17] 간호대학생이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COVID-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우울, 분노, 고립감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 또한 야기하고 있다[18]. 특히, 2020년 여름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로 인한 우울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43.8%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18]. COVID19 시기 간호대학생의 불안 정도는 간호전문직관 동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19],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불안간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COVID-19 팬데믹 시기의 대학생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코로나 상황에서의 교육성과, 학습경험, 새로운 교수법 개발, 학업만족도 등 교육관련 성과, 경험, 인식도와 관련된 연구 위주로 수행되었을 뿐[7,18], COVID-19 팬데믹 이후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의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불안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COVID-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불안 정도와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간호사이미지, 간호전문직관, 전공만족도 향상을 위한 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과 불안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 불안의 정도를 파악한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불안의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COVID-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불안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COVID-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불안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연구대상자는 S시 소재 E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중인 1~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로 자료수집하였으며, 자료수집시기는 2022년 5월~7월까지이다. 대상자 수는 G power version 3.1.9.7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효과크기 0.225로 설정할 때 요구되는 대상자 수는 205명으로 산출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50명을 목표대상자 수로 하였다.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20명을 제외하고 최종 230명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간호사 이미지

간호사 이미지는 송인자가 개발하여 연구[20]에 사용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총 30문항으로 측정 기준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9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hronbach α .83이다.

2) 전공만족도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평가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김계현과 하혜숙이 개발한 34문항으로 구성된 학과만족 도구를 이동재가 전공만족 관련 18문항을 추출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21]. 해당 도구는 전공에 대한 '일반만족' 6문항, 사회적 인식에 대한 '인식만족' 6문항, 교과에 대한 '교과만족' 3문항,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동재의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Chronbach's α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 α .92이다.

3)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은 Yeun 등이 개발한 29문항을 Han 등이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증으로 축소한 18개 문항 '간호전문직관' 도구[15]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전문직 자아개념(6개념), 사회적 인식(5문항), 간호의 전문성(3문항), 간호계의 역할(2문항), 간호의 독자성(2문항)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범위는 1~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6이다.

4) 불안 척도(STAI-Y)

불안은 Spielberger이 개발하고 한덕웅 등이 번안[22]하여 타당화한 STAI-Y를 사용하였다. STAY-Y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STAI-Y는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난 1주일 내의 우울 증상을 보고하는 우울 척도와 상태 불안 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역채점 문항은 1, 2, 5, 8, 10, 11, 15, 16, 19, 20번 문항이다. 선행연구에서 Chronbach's α .90이었고, 본 연구의 Chronbac's α .94이다.

4.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서면동의를 받고,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연구대상자만 참여하였다.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26.0 Window version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불안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불안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test, ANOVA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사후검증은 Scheffe 검정을 시행하였다.

4) 대상자의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불안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III. 실험 및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30)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	40(17.4)
	Female	190(82.6)
Age(yr)	Mean±SD (Range)	20.57±2.65 (18-34)
Grade	Grade 1	75(32.6)
	Grade 2	79(34.3)
	Grade 3	67(29.1)
	Grade 4	9(3.9)
Religion	Christian	40(17.4)
	Catholic	20(8.7)
	Buddhism	11(4.8)
	Atheism	158(68.7)
	Others	1(0.4)
Motivation for major choice	Aptitude	103(44.8)
	High employment rate	85(37.0)
	Recommendation	27(11.7)
	Along with the grade	10(4.3)
	Others	5(2.2)
Practical Experience	None	77(33.5)
	school practicum	77(33.5)
	clinical and school practicum	76(33.0)
Healthcare workers in family members	Yes	67(29.1)
	No	163(70.9)
G.P.A	<2.5	1(0.4)
	2.5 ~ 3.0	13(5.7)
	3.0 ~ 3.5	34(14.8)
	3.5 ~ 4.0	70(30.4)
	≥4.0	38(16.5)
	No response	74(32.2)
The image of nursing job before COVID-19	Positive	222(96.5)
	Negative	8(3.5)
The image of nursing job during COVID-19	Positively changed	56(24.3)
	Negatively changed	3(1.3)
	Unchanged	165(71.7)
	Undefined	6(2.6)
The image of nursing job after COVID-19	Positive	174(75.7)
	Negative	11(4.8)
	Unchanged	45(19.6)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190명(82.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학년은 1학년과 2학년이 각각 75명(32.6%), 79명(34.3%)으로 전체비율의 66.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종교는 무교가 158명(68.7%)로 가장 높았고 가족 중에 의료인이 있는 경우는 67명(29.1%)이었으며, 전공 선택동기로는 '적성'이 103명(44.8%)으로 나타났다. 실습경험은 '경험을 하지 못함'과 '교내 실습 경험만 있음'이 동일하게 각각 77명(33.5%)이었으며, '교내 실습과 임상 실습 모두 경험함'이 76명(33%)이었다. COVID-19 유행 이전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이다'가 222명(96.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COVID-19 유행 기간 동안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변함없음'이 165명(71.7%)으로 가장 높았으며, '긍정적으로 변함'이 56명(24.3%), '부정적으로 변함'이 3명(1.3%)으로 나타났다. COVID-19 유행 이후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이다'가 174명(75.7%)로 가장 높았고, '변함없음'이 45명(19.6%), '부정적이다'가 11명(4.8%)으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불안의 정도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불안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정도는 평균 110.56±9.48점이었다. 전공만족도는 평균 74.60±9.63점이었으며 전공만족도의 하위영역 중 인식만족이 26.47±3.1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67.48±8.41점이었고, 불안은 39.90±11.05점으로 나타났다.

표 2.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불안의 정도
Table 2. Image of nurses,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xiety (N=230)

Variables	M±SD	Min	Max
Image of nurses	110.56±9.48	86.00	136.00
Major Satisfaction			
Total	74.60±9.63	46.00	90.00
Recognition	26.47±3.17	15.00	30.00
General	24.49±4.30	13.00	30.00
Relationship	11.82±2.32	6.00	15.00
Subject	11.81±2.16	3.00	15.00
Nursing professionalism	67.48±8.41	48.00	90.00
Anxiety	39.90±11.05	20.00	68.00

표 3.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불안의 정도
Table 3. Differences of Image of Nurses,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Anxie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30)

Variables	Categories	Image of Nurses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xiety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Mean±SD	t/F(p)
Gender	Male	106.87±10.37	-2.74* (.007)	72.17±11.30	-1.75 (.080)	65.52±10.36	-1.25 (.215)	38.12±10.34	-1.11 (.244)
	Female	111.34±9.12		75.11±9.20		67.68±7.39		40.27±11.19	
Grade	Grade 1	114.09±9.61	6.28** (<.001) a>c	77.93±8.92	5.63** (<.001) a>c	68.01±8.17	1.67 (.174)	37.92±11.73	3.54* (.015) a<b
	Grade 2	109.97±9.21		74.20±10.03		68.17±8.11		43.11±10.73	
	Grade 3	107.70±8.72		71.82±9.19		65.49±7.43		38.44±9.77	
	Grade 4	107.60±8.09		71.00±7.58		67.44±8.74		39.00±12.54	
Religion	Yes	112.61±9.97	2.22* (.027)	74.98±9.04	0.40 (.683)	68.62±7.55	1.68 (.093)	40.19±11.33	0.27 (.786)
	No	109.63±9.13		74.42±9.91		66.71±8.14		39.76±10.96	
Motivation for major choice	Aptitude	112.13±9.54	1.32 (.262)	78.19±8.40	7.75** (<.001) a>b>c>d	68.54±8.19	1.20 (.310)	37.44±11.49	2.56* (.039)
	High Employment rate	109.23±9.44		72.23±9.28		66.16±8.00		41.83±11.13	
	Recommendation	109.81±7.82		71.51±8.05		67.11±6.72		41.25±8.44	
	Along with the grade	108.70±12.21		68.00±14.07		65.90±7.41		44.70±6.09	
	others	108.60±10.01		70.60±14.04		65.40±10.59		40.60±13.24	
Practicel experience	None	113.72±9.86	8.29** (<.001) a>c	77.76±8.96	8.04** (<.001) a>c	68.02±8.08	2.27 (.106)	37.98±11.98	5.33** (.005) a<b c<b
	School practicum	110.23±9.06		74.27±10.07		68.16±8.21		43.18±10.42	
	Clinical and school practicum	107.69±8.60		71.72±8.98		65.72±7.56		38.51±10.04	
Healthcare Workers in Family members	Yes	108.92±9.74	-1.68 (.093)	72.89±10.59	-1.72 (.086)	66.83±8.27	-0.57 (.563)	39.94±11.59	0.03 (.972)
	No	111.23±9.32		75.30±9.16		67.50±7.90		39.88±10.86	
G.P.A	< 2.5	86.00± .00	4.79** (<.001)	50.00	6.03** (<.001)	54.00± .00	1.54 (.178)	51.00	0.93 (.459)
	2.5~3.0	106.15±6.89		66.76±6.30		64.30±9.96		41.61±10.90	
	3.0~3.5	108.70±10.42		72.64±11.46		67.35±8.38		40.26±11.13	
	3.5~4.0	109.05±8.77		73.17±8.63		66.45±7.91		40.62±10.04	
	≥ 4.0	110.52±8.01		76.00±8.92		69.05±6.25		41.26±11.34	
Image of nurses after Covid19	Positive	111.25±9.28	1.97 (.142)	75.35±9.47	2.34 (.098)	68.04±7.57	3.17* (.044)	39.73±10.95	0.72 (.484)
	Negative	109.18±13.02		71.00±10.63		63.81±12.48		37.00±7.75	
	Unchanged	108.22±9.08		72.55±9.77		65.35±7.94		41.24±12.10	

G.P.A Grade point average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및 불안의 차이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및 불안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F=-2.74, p=.007), 학년(F=6.28, p<.001), 종교(F=2.22, p=.027), 실습 경험(F=8.29,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간호사 이미지가 높았고 종교에서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상자보다 간호사 이미지가 높았다. 학년과 실습 경험을 사후검정한 결과, 1학년이3학년보다 간호사 이미지 정도가 더 높았고, 실습을 경험해보지 못한 대상자는 교내실습과 임상실습 모두 경험해본 대상자 보다 간호사 이미지가 더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의 차이는 학년(F=5.63, p<.001), 전공선택동기(F=7.75, p<.001), 실습 경험(F=8.04,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한 결과 학년에서는 1학년이 3학년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았고, 전공선택동기는 적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습 경험에서는 실습을 경험해보지 못한 대상자가 교내실습과 임상실습 모두 경험해본 대상자보다 전공만족도가 더 높았다. 간호전문직관에 따른 COVID-19 유행 기간 이후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17, p=.04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 차이는 학년(F=3.54, p=.015), 전공선택동기

표 4.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및 불안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s among Image of nurses, Major Satisfaction, Nursing Professionalism, Anxiety (N=230)

Variables	Nursing Professionalism	Anxiety	Major Satisfaction				
			Recognition	General	Relationship	Subject	Total
Image of nurses	.635** (p<.001)	-.117 (p=0.075)	.580** (p<.001)	.477** (p<.001)	.330** (p<.001)	.437** (p<.001)	.581** (p<.001)
Nursing Professionalism		-.143* (p=0.030)	.441** (p<.001)	.422** (p<.001)	.305** (p<.001)	.434** (p<.001)	.504** (p<.001)
Anxiety			-.230** (p<.001)	-.376** (p<.001)	-.305** (p<.001)	-.271** (p<.001)	-.378** (p<.001)

(F=2.56, p=.039),실습경험(F=5.33,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후검정한 결과, 2학년이 1학년보다 불안의 정도가 높았고, 실습 경험에서는 교내 실습만 경험한 대상자가 교내 실습과 임상 실습 모두 경험한 대상자와 실습 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불안의 정도가 높았다. 불안에 따른 전공선택동기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4.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및 불안의 상관관계

대상자에 대한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과 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전문직관(r=.635, p<.001), 전공만족도(r=.581 p<.001)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전문직관과 불안(r=-.143, p=.030)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과 전공만족도(r=.504, p<.001)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상자의 불안은 전공만족도(r=-.378, p<.001)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 의

본 연구는 COVID-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 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가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는 평균 110.56점이며 5점 만점으로 환산한 경우 3.69점으로, 2019년 COVID-19 팬데믹 이전 동일한 연구도구를 이용해 간호대학생 185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1]에서 3.92점, 2021년 COVID19 팬데믹 때 간호대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선행연구[16]에서 나타난 4.14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간호사 이미지는 성별, 학년, 종교, 실습경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년은 1학년이 3학년보다 간호사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고, 이는 간호대학생 410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3] 결과와 일치하여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또한 실습경험이 없는 학생들이 실습경험이 있는 학생 보다 간호사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고, 이는 간호대학생 30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일치했다[24]. 이는 임상실습 여부가 간호사 이미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임상실습이 간호사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의 점수는 평균 74.61점이며 5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4.1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358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간호사 이미지 점수 인 3.92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26].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저학년일수록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 연구[25] 결과를 고려 하였을 때, 본 연구대상자의 1, 2학년 구성비율이 66.9%를 차지하여 저학년의 비율이 54.2%인 이규은 등의 연구보다[26] 그 비율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전공만족도는 학년, 전공선택동기, 실습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년이 낮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왔는데 이는 COVID-19 이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선택과 전공만족도를 연구한 선행 연구[25] 결과와 일치하였다. 전공선택동기는 적성에 맞아 선택한 경우 가장 높게 나왔으며 이는 팬데믹 이후 상황에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 연구[27]결과 및 COVID-19 이전 간호대학생이 느끼는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28]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어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 실습경험은 실습을 경험해보지 못한 대상자들의 전공만족도가 실습을 경험해본 대상자보다 더 높았다.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을 진행하는 동안 학교에서 학습한 부분과 실제 임상현장에서

적용의 차이, 일부 간호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비교육적 태도 등을 경험하여 간호사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선행연구[29]에 따라 전공만족도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전문직관의 점수는 평균 67.48점, 5점으로 환산한 경우 3.75점으로, 2020년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간호대학생 358명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26]에서 나타난 간호전문직관 평균 점수인 3.5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가 대부분 1학년(32.6%), 2학년(34.3%)으로 구성되어 있어, 저학년일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27]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본 연구 대상자는 적성(44.8%)에 따라 전공을 선택한 이들이 많고, 적성에 따라 간호학과를 진학한 경우 간호전문직관이 더 높게 나타나므로 선행연구[26]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불안과 달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 연구[26]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은 학년과 간호학 선택동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연구대상자 수 차이로 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선행 연구[26]의 연구 대상자는 총 358명이고 본 연구 대상자는 총 230명으로 추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불안의 점수는 평균 39.90점으로 5점으로 환산할 경우 1.99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2017년 COVID-19 상황 이전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행 연구[31]에서는 불안 점수가 평균 2.16점이 나왔고 COVID-19 상황을 경험한 252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32]에서는 2.21점으로 COVID 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 5월~7월에 조사한 [32]연구가 가장 높았다. 터키 간호대학생 1,653명을 대상으로 2020년 4월과 5월 조사한 결과 불안점수는 43.95점으로[19]본 연구는 COVID19 확산이 지난 2022년 5월~7월에 조사한 것으로 COVID-19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초기보다 간호대학생들의 불안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되며 COVID19 경험 시기에 따른 불안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높아졌고, 연구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불안은 낮아졌으며, 연구대상자의 불안이 낮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규은 등의 연구에서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자기효능감의 관계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나 연구 결과[26]와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전문직 자아개념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를 지지하였다[33]. 또한 COVID-19 발생 시 간호대학생의 불안정도는 간호전문직관에 중요한 예측요인으로[19] 간호대학생의 불안정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필요가 있다.

COVID-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는 전공만족도 및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고 불안을 낮추므로 간호대학생이 간호전문직관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COVID-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불안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임상실습경험은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불안 정도에 공통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였고, 대상자의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게 나타났고, 불안이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낮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실습경험을 고려하여 간호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COVID-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1회적인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불안을 측정한 단면연구라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학년에 따른 변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종적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단일기관에서 대상자를 모집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다기관 연구로 대상자 수를 확대하여 반복연구할 것으로 제언하며 임상실습경험에 따른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사이미지, 전공만족도, 간호전문직관, 불안의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Korea Diseas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https://ncv.kdca.go.kr/hcp/page.do?mid=0

[2] H.J. Choi,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 nalism between Image of Nurses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4, No.10, pp. 225-237, December2016https://doi.org/10.12811/kshsm.2016.10.4.225

[3] S.H. Lee, S.Y. Kim and J.A. Kim,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0 No. 2, pp. 219-231, 2004.

[4] J.A. Seago, J. Spetz, A. Alvarado, and D. Keane, "The nursing shortage: is it really about image?", *Journal of Healthcare Management*, Vol. 51, No. 2, pp. 96, 2006

[5] T.M. Nauderer, and M.A. Lima, "Nurse's image: review of the literature." *Revista brasileira de enfermagem*, Vol. 58,No. 1, pp. 74-77, 2005.

[6] E.H. Jo, R.J. Lim, and S.H. Kim,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Work Value on Major Commit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Nurses Imag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5, No. 2, pp. 11-21, May 2021. http://doi.org/10.34089/jknr.2021.5.2.11

[7] J.S. An, "Analysis of Image of Nurses on Articles in Korean Daily Newspapers after Corona Pandemic",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1, pp. 66-74, 2021. https://doi.org/10.17703/JCCT.2021.7.1.66

[8] K.H, Kim and H.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 No. 1, pp. 7-20, 2000

[9] S.H. Shin, J.W. Lee and C.T. Kim, "The Effect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on their Engagement in the Majo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1, No. 7, pp. 136-145, 2020. https://doi.org/10.5762/KAIS.2020.21.7.136

[10]H.S. Cha, "Influence on Adjustment of University Life among N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8, pp. 381-391, 2019. https://doi.org/10.5762/KAIS.2019.20.8.381

[11]S.M. Son, E.S. Jo and S.J. Choi, "Changes in Major Commitment and Satisfaction of 1st and 2nd grades university students in Health-related Departments through the Application of Un-Contact Lectures during COVID-19 Pandemic",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 38 No. 2, pp. 389-398, 2021. https://doi.org/10.12925/jkocs.2021.38.2.389

[12]B.J. Park, S.J. Park and H. Jo,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str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the nursing profess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7, pp. 220-227, 2016, https://doi.org/10.5762/KAIS.2016.17.7.220

[13]H.H. Cho, N.H. Kim, "Relationship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 Image, and Core Elemen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that Nursing Students Perceiv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4, pp. 548-557. 2014. https://doi.org/10.5977/jkasne.2014.20.4.548

[14]Y.M. Kwon, E.J. Yeun, "A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 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3 No. 3, pp. 285-292. 2007.

[15]E.J. Yeun, Y.M. Kwon, O.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35, No. 6, pp. 1091-1100, 2005.

[16]J.H. Park, D.Y. Kang, J.M. Kang, N.H. Gwak, C.E. Kim, and M.K. Lee, "The association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image of nurses of nursing students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the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8, No. 1, pp. 101-112, February 2022, https://doi.org/10.5977/jkasne.2022.28.1.101

[17]B. Savitsky, Y. Findling, A. Ereli, and T. Hendel, "Anxiety and coping strategies among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 46, 102809, July 2020. https://doi.org/10.1016/j.nepr.2020.102809

[18]H.E. Park, N.H. Jung, H. Jo, (2021). "A Survey of Korean College Students Anxiety and Depression in COVID-19", *Journal of Research Methodology*, Vol. 6, No. 3, pp. 255-278, November 2021

[19]A. Yüksel, and E.B. Yılmaz, "Nursing student attitudes toward nursing profession and their state anxiety level during COVID-19 outbreak.", *Journal of Psychiatric Nursing/Psikiyatri Hemsireleri Dernegi*, Vol. 13, No. 1, pp. 76-82, March 2022.

https://doi.org/10.14744/phd.2021.39205
[20]I.J. Song. "A Comparative Study of the Opinon on the Image of Nursing Among the Doctors, Nurses, other Hospital Personnel and the General Public", *Taehankanho. The Korean nurse*, Vol. 32, No. 2, pp. 51-62, 1993.
[21]M.R. Jo, H.J. Lee, Y.R. Kang, Y.J. Kim, K.M. No and S.E. Choi, "Impacts of Image of nurses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1, No. 12, pp. 101-110, 2021.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2.101
[22]D.W. Hahn, C.H. Lee, K.K. Chon. "Korean Adaptation of Spielberger's STAI (K-STAI)",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1 No. 1, pp.1-14. 1996.
[23]Y.H. Kim, and Y.C. Kwon, "The Effect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on Nurse image, in Nursing Students Perceiv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2, pp. 215-224, February 2018. https://doi.org/10.14400/JDC.2018.16.2.215
[24]H.J. Jang, "Effects of Image of Nurse, Clinical Performance, and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on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 37, No. 3, pp. 635-648, June 2020.https://doi.org/10.12925/jkocs.2020.37.3.635
[25]E.K. Joo, and J.W. Han, "The Effect of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Satisfaction in Major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 12, No. 1, pp. 2563-2578, February 2021. http://dx.doi.org/10.22143/HSS21.12.1.181
[26]K.E. Lee, and I.S.Seo, "The effects of calling, nurse's image,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efficacy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8, No. 1, pp. 37-47, February 2022. https://doi.org/10.5977/jkasne.2022.28.1.37
[27]S.A. Hwang, "Relationship between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the COVID-19 Pandemic",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Vol. 25, No. 1, pp. 32-39, June 2022. http://doi.org/10.7587/kjrehn.2022.32
[28]H.E. Jo, Y.H. Ahn, S.M. Ryu, J.Y. Lim and H.K. Kim, "The Effect of the Image of Nurses and the Major Satisfaction on the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in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 36 No. 3, pp. 1008-1017. 2019. https://doi.org/10.12925/jkocs.2019.36.3.1008
[29]M.A. Kim, S.H. Nam, and H.E. Kim, "Changes in Student Nurses' Perception between Initial and Final Clinical Practice"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1, No. 1, pp. 21-30, April 2004.
[30]J.Y. Ju, "Correlations among Major Satisfact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nvergence Science*, Vol. 11, No, 2, pp. 192-206, February 2022. https://doi.org/10.24826/KSCS.11.2.12
[31]E.H. Kim, "Relationship of Anxiety, Empathy, Ego-resilience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ccosiation*, Vol. 18, No. 8, pp. 326-337, 2018. https://doi.org/10.5392/JKCA.2018.18.08.326
[32]A.J. Kim, J.H. Moon, and Y.H. Seo,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Resilience;Social Support; Community Resilience;and Anxiety of Nursing Students Experienced COVID-19 Situation",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 38, No. 1, pp. 37-47, February, 2021. https://doi.org/10.12925/jkocs.2021.38.1.37
[33]M.A. Lee, Y.S. Kim. "Influence of nurse's image and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major on their career identity: The mediating effect of professional self-concept",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8, No.3, pp248-258, May, 2022.https://doi.org/10.5977/jkasne.2022.28.3.248

※ 이 논문은 2022년도 을지대학교의 HT 연구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